

## 기상청 첫 여성 예보국장 임용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기상청 신임 예보국장에 인희진(印熙珍, 53) 국장을 2024년 1월 1일 자로 전보 임용하였다. 여성이 예보국장에 임용되는 것은 처음이다.

인희진 국장은 2006년 기상사무관으로 채용되어 총괄예보관실, 예보기술과장, 예보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지진화산국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신임 인희진 예보국장은 예보국에 근무하면서 새로운 예보체계 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1시간 단위의 상세 단기예보를 제공했으며, 기획재정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향후 5개년간 기상청의 비전과 발전 목표, 전략을 설계하는 등 주요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오랜 예보 실무경험을 통한 우수한 업무추진력과 탁월한 기획 및 관리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이학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0년에 대통령 포상 경력이 있다.

담당 부서	예보국 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성묵 (02-2181-0492)
		담당자	사무관	한효진 (02-2181-0496)